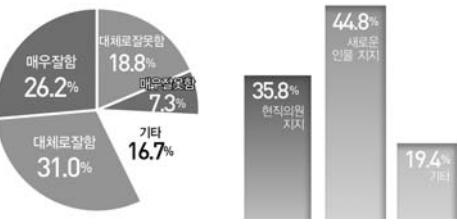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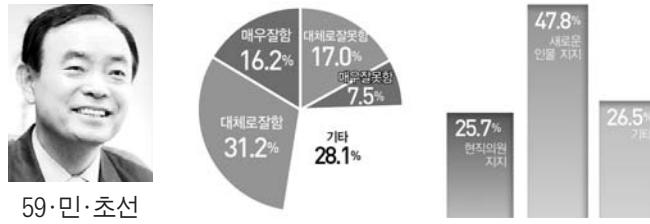
현역의원 8명 중 4명 재출마 지지율 20%대

박주선 동구



“내년 총선에도 지지하겠다” 35.8%

장병완 남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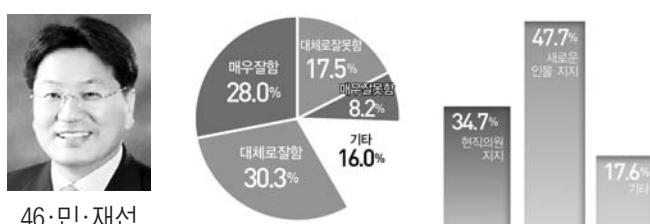
작년 보선 금뱃지 합류 아직은…

조영택 서구 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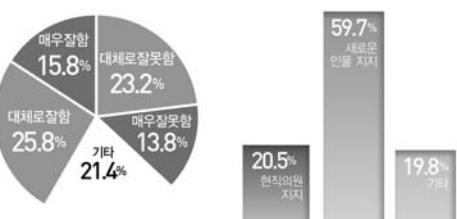
“의정활동 잘하고 있다” 43.5%

강기정 북구 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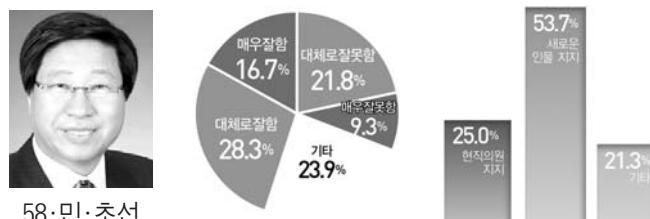
20대·50대 ‘3선 도전’ 거부감 표출

김영진 서구 을



8개 지역구 중 지지도 가장 낮아

김재균 북구 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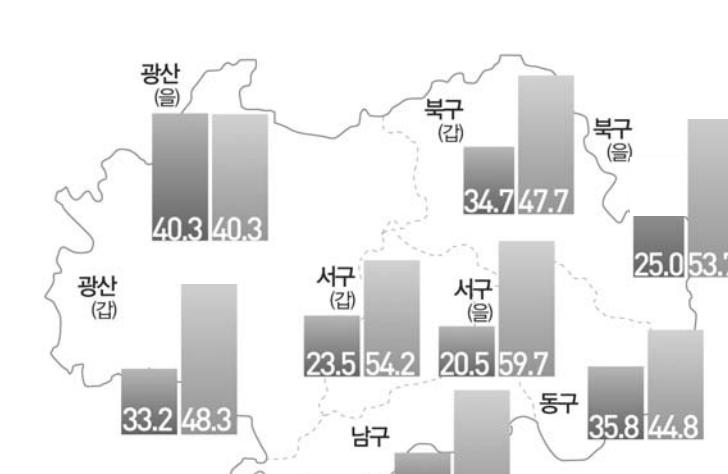


“잘하고 있지만…” 물갈이 요구 높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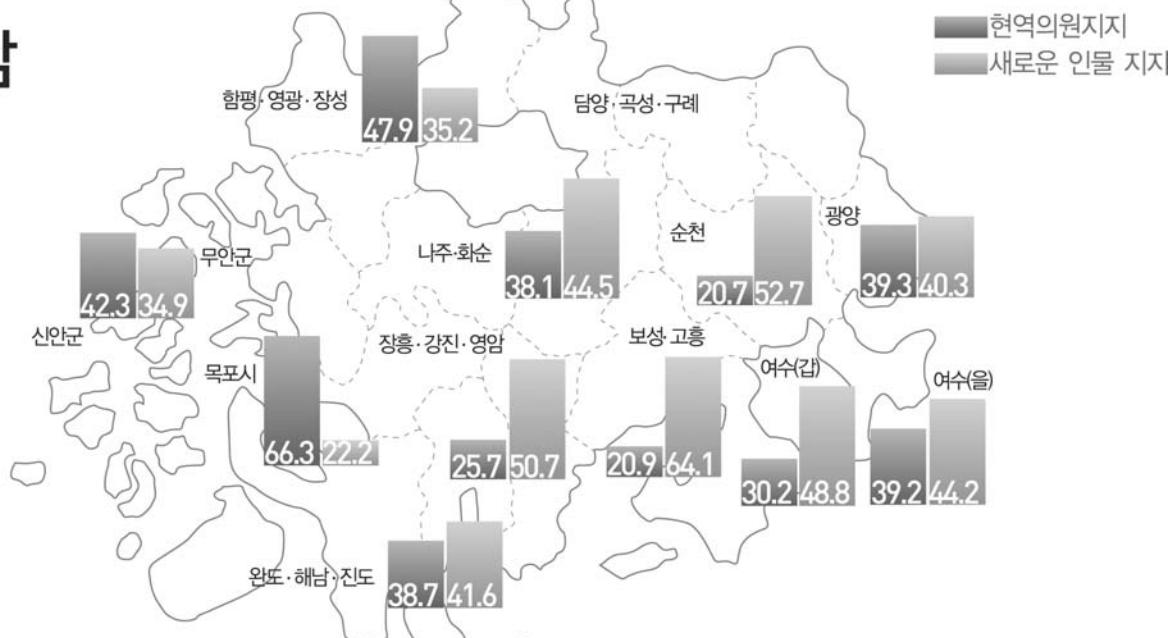
김영진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서구 주민의 반응은 냉담했다. ‘잘하고 있다’(41.6%)와 ‘잘못하고 있다’(37.0%)는 응답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. 과학벨트, 5·18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‘잘못하고 있다’는 답변이 8명의 광주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. 내년 총선에서 지지도를 20.5%에 그쳐 광주 8개 지역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.

북구 을 주민들은 대체로 현역 의원인 김재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김 의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. 내년 총선에서 김 의원을 ‘지지하겠다’(25.0%)는 응답보다 ‘새 인물을 지지하겠다’는 응답자가 53.7%로 훨씬 높았다.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지역구 후보들이 많아 이를 지지세력의 의견도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광주



전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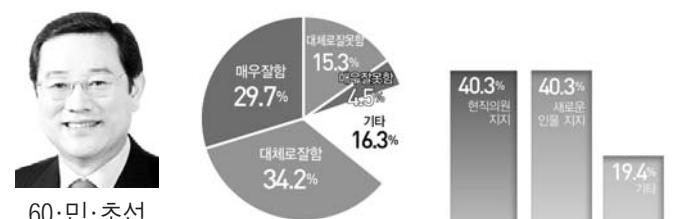
김동철 광산 갑



60대에서만 재신임 지지도 45% 상회

광산 갑 주민 절반(55.7%) 이상은 김동철 의원이 ‘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’고 평가했다. ‘잘못하고 있다’는 응답은 26.8%였다. 하지만, 내년 총선에서 김 의원의 지지율은 33.2%에 그쳤다. 60대에서만 김 의원에 대한 재신임 지지도가 46.6%로 높았다. 특히 20대와 30대, 40대에서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‘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’고 답했다. 이는 3선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이용섭 광산 을



8개 지역구 중 의정평가·지지도 ‘으뜸’

이용섭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는 광주 8개 지역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. 의정활동을 ‘잘하고 있다’는 응답이 63.9%로, ‘잘못하고 있다’는 응답(19.8%)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. 광주 8명 현역의원 중 가장 좋은 성적표인 셈이다.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내년 총선 재신임 지지도로 이어졌다. 내년 총선에서 ‘이 의원을 지지하겠다’와 ‘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’는 응답자가 각각 40.3%로 똑같이 나타났다.

